

'일과 쉼'의 철학

김신혁 서광사 대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지 이제 만3년이 지났다.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해온 문제여서 쉽게 생각할 수는 있었으나 막상 시작할 때는 이 제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근무시간 중에는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휴일 동안에는 자기개발에 힘쓰도록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가며 관여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새로 입사한 직원 중에는 회사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관여한다"거나 "숨이 콕콕 막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나는 금요일 오후만 되면 조금씩 지면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토요일에는 아직도 내일이 일요일이구나 하면서, 일요일 오후가 되어야 다음날 일할 기쁨에 힘이 생기는 버릇이 2년여간 계속되는

것이였다.

인생에는 걱정과 평온, 고통과 평화, 노동과 휴식이 교차한다. 인생 전체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공존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리듬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리듬을 무시한 채 너무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동과 휴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그 중요성, 근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이로 인해 휴식의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휴식은 일할 능력의 재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인간의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

다. 더 나아가서 일과 쉼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하나의 개념처럼 이해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할 때, 휴식을 강조하다보면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든가, 일의 중요성을 역설하다 보면 일에만 열매이게 된다든가 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주5일 근무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서 직원들이 생활의 리듬을 잃고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라졌다. 이제는 직원들 모두가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휴일은 각자에 맞게 선용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나의 잔소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없어져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얼마 안있으면 휴가를 2년 정도 모아 두었다가 한달 가량 외국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해 본다.

출판저널

통권 제47호/198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기자—金芝媛 權正子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梁承杓 崔兌源
李義天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제) 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鍾廈	安秉永
安輝潯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靚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喼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鍾庫
韓相震	韓節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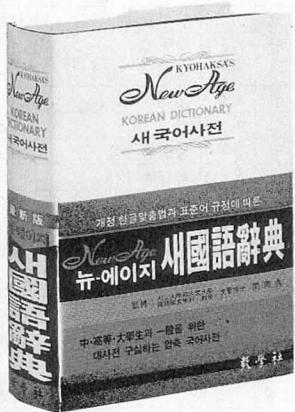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9월2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9호(10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에이지 새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조선 성종 때인 1493년 한문으로 된 음악지침서가 편찬되었다. 이 음악책에는 「動動」「井邑詞」 등이 한글로 되어 있어 이색적이기도

하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1. 樂書孤存
2. 樂學軌範
3. 高麗史節要

문제2

신라 때 漢詩文의 대가인 孤雲 崔致遠이 지은 이 시문집은 당시 唐나라뿐 아니라 후세 藝苑에까지 불후의 명성을 떨쳤다. 이 시문집의 이름은 무엇인가.

1. 鷄林雜傳
2. 古今詩刪
3. 桂苑筆耕集

문제3

조선 영·정조 때의 한학자 柳得恭은 李德懋·朴齊家·李書九와 함께 漢學四家の 한사람으로 꼽힌다. 그가 서울의 세시풍속과 명소·고적 등에 관해 쓴 책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1. 東國歲時記
2. 京都雜誌
3. 擇里志

문제4

미국출생의 영국시인으로 1917

년에 첫시집 「프루프록과 기타 관찰들」(Prufrock and Other Observations)을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던 시인은 누구인가. 194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도 있다.

1. T.S 엘리엇
2. 에드거 앨런 포
3. 예이츠

제45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5호(8월5일자)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63통, 이중 정답은 148통이었습니다.

당첨자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③ 「금병매」

중국 명나라 때의 장편소설로 유방아 西門慶과 그 가족의 문란한 생활,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2. ③ 나일강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종이 대용품으로 썼던 파피루스는 아름답고 내구력이 있어 BC 4세기 때의 문서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3. ② 김동인

순수문예지 「創造」를 발간하기도 했던 김동인(1900~1951)은 「배따라기」「광명소나타」 등 간결하고 현대적인 문장의 많은 소설을 남겼다.

4. ③ 千一夜話

「아라비안 나이트」는 1千1夜동안 계속된 이야기의 모음이다.

당첨자

박학일(광주시 북구 두암동 902-2 광일맨션 나동 205호)

목호영(충북 청주시 모충동 440-18, 143/4)

오경희(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57-17)

하재운(경남 창원시 신월동 93번지 은아APT 217동 302호)

전화자(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주공 APT 57-207호)